



## 네덜란드에 존재하는 기독교 정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
성 희 찬

먼저 반혁명당 (Anti-Revolutionaire Partij) 입니다. 1878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도로 창설되어 1977년까지 존속하였습니다. 1901-1905까지 아브라함 카이퍼의 내각이 정국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. 한편 온건 반혁명주의자들이 주도하여 1908년에 창당한 기독교역사연합당 (Christelijke Historische Unie) 이 있었으나 반혁명당처럼 역시 1977년까지 존속하다가 없어졌습니다.

지금 기독교 정당으로 첫째 기독교 민주당 (Het Christen Democratische Appel) 을 들 수 있습니다. 1977년 총선 이후 반혁명당, 카톨릭국민당, 기독교역사연합당이 연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정당입니다. 1960년대 말부터 기존 종교 정당들이 의식을 잃어가면서 도출해 낸 결과입니다. 기독교민주당은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약 12년 동안 연립 내각의 다수당이 되어 정국을 주도하였습니다. 당시 수상 뢰버스는 지금 유엔 산하 난민 대책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로마카톨릭에서 약 50%, 국가교회 (NHK) 에서 25%, 개혁교회 총회측 (GKN: synodaal) 에서 15% 등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. 올해 당수는 개혁교회 (총회측) 소속 대학 교수 출신의 발칸더라는 젊은 사람입니다. 이전 당수는 로마카톨릭이었다고 이 분이 당수가 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.

둘째는 기독교 연합 (Christen Unie) 입니다. 작년에 GPV (Gereformeerde Politiek Verbond: 개혁주의 정치연맹) 와 RPF (Reformatorische Politieke Federation: 개혁정치동맹) 정당이 제휴하여 신설한 정당입니다. GPV는 31조과 개혁교회가 1944년 개혁교회 (GKN: 총회측) 에서 분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세운 정당이었고, RPF 는 개혁교회 (GKN: 총회측) 로부터 약 40%, 네덜란드개혁교회 (NGK) 로부터 약 25% 지지를 얻었습니다. RPF는 정치 사상과 행동의 기준으로서 성경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창조, 타락, 구속,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동인 (動因)이 큰 역할을 한 정당입니다.

셋째는 개혁주의국가당 (SGP: Staatkundige Gereformeerde Partij) 입니다. 신정 정치를 목표로 합니다. 정부의 임무를 둘러싸고 크리스천 유니와 견해를 달리합니다. 즉 이 정당은 정부의 임무를 “정부의 임무는 모든 우상과 거짓 예배를 제거하고 막으며,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하는 것이” 고 믿습니다. 이 내용은 본래 네덜란드신앙고백 (벨직 신앙고백) 36조에 있었던 것으로 1905년 개혁 교회 총회에서 (GKN) 삭제되었으나 이 정당은 정부의 임무를 처음 작성된 그대로 믿습니다. 즉 정부는 기독교 외 다른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정당은 과거 네덜란드 왕족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혼인할 때 거세게 반대해왔으며 지난 2월 2일 네덜란드 황태자가 카톨릭 신부와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. 국가교회 (NHK) 내 연맹 (Bond) 소속 신자들로부터 약50%를, Gereformeerde Gemeente 라는 보수교회에서 30%, 기독교개혁교회 (CGKN) 에서 10%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.

다시 돌아와서 제가 사는 지역 아펠도른 시 지방 선거 (시의회 의원)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.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크리스천 유니 정당 이름으로 세 사람이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. 한 사람은 현 시 의원이면서 저와 함께 성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 (직업은 회계사), 또 한 사람은 중소기업사장이고 (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), 한 사람 역시 보험회사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(최근까지 장로로 임기까지 봉사하였습니다).



크리스틴 유니 정당 이름으로 30여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는 이세령 목사의 지도 교수인 기독교개혁신학교 구약 교수 페일스도 포함 (18번) 되어 있습니다. 크리스틴 유니 정당 30명 후보를 보면 교파가 다양합니다. 31조파 개혁 교회나 기독교개혁과 교회 뿐 아니라 다른 개혁 교회, 나아가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 출신, 심지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출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우리 입장에서 볼 때 신학교 교수가 시 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입니다. 처음 말씀드린대로 목사 부인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합니다. 더욱 이상한 것은 공예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공기도를 할 때 크리스틴 유니 정당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, 입후보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예외없이 담임 목사께서 공기도에서 크리스틴 유니 정당과 입후보자를 위해 기도하시더군요. 우리 나라 같으면 담임 목사의 이 기도는 선거법 위반이 될 뿐 아니라 아니 법 이전에 교인들이 그 목사를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.

여러분들은 기독교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

## 개혁주의 학술원

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